



Barun ICT

2024. 11
Newsletter **KO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Event

인간중심 AI: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선을 위한 기술적 접근 2024 바른ICT연구소 컨퍼런스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4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
Human-Centered AI for Enhancing Well-Being and Social Good

한국지식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AI 시대 K-경영, K-지식 확산

ISACA Korea Conference
인공지능 시대의 Digital Trust, IT감사, 통제의 방향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09:30-17:00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및 컨퍼런스홀

사전등록 QR코드

한국지식경영학회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 바른ICT연구소 | ISACA Korea Chap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오는 11월 20일(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한국지식경영학회, 연세대학교 개인정보 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단,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ISACA Korea)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바른ICT연구소는 ‘Human-Centered AI for Enhancing Well-Being and Social Good’을 주제로, 바른ICT연구소 특별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NSIDE

News

2

제13회 Asia Privacy Forum 개최

Research

10

바른ICT 연구 보고서 2024-1: ‘약성
덧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분석 2.0’ ③

AI Trend

14

Perplexity로 더 똑똑하게: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바른ICT연구소, 제13회 Asia Privacy Forum 개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김범수)는 한국CPO 포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 및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과 공동으로 10월 17일(목)과 18일 (금) 양일간 연세대학교 장기원 국제회의실과 백양누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rustworthy AI Governance and Privacy)”이라는 주제로 제 13회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리지 포럼 (이하 ‘APB’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올해로 13회차를 맞는 APB 포럼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유럽 10여개국의 AI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관련 학계, 정부기관, 기업,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PB 포럼은 양일간 총 6개의 세션(△‘미래를 위한 생성형 AI와 AI 거버넌스 탐색’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와 경쟁법의 조화’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플랫폼 거버넌스와 생성형 AI의 책임성’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정책과 데이터 주권’ △‘데이터의 공정한 활용’),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된 사이드 이벤트 및 2개의 기조연설로 구성되었으며 총 19명의 연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번째 기조연설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이성엽 회장의 ‘생성형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번째 기조연설은 필리핀 개인정보위원회의 Ivin Alzona 전무이사가 ‘필리핀의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 규제적 관점’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제13회 APB 포럼에서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제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 발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뜻깊은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13년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선진 사례와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던 APB 포럼은 향후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제13회 APB 포럼의 세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였다.

정리: 정미정 연구교수, 김유선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Day 1

Session 1 미래를 위한 생성형 AI와 AI 거버넌스 탐색

싱가포르의 진화하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Jason Grant ALLEN (Associate Professor,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Yong Pung How School of Law, Singapore)



싱가포르는 AI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협력적이고 위험 기반의 거버넌스 모델을 채택했다. 즉, 싱가포르는 자발적 표준과 준규제를 강조하는 '소프트 터치' 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규제 접근법은 EU와 중국의 규칙 기반 모델과 비교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Jason 박사는 싱가포르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AI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워크, AI 검증 툴킷, 국가 AI 전략(NAIS 1.0 및 2.0) 등 주요 이니셔티브를 다루며, 강력한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정부, 산업계, 학계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ASEAN을 통한 지역 AI 거버넌스 형성에서 싱가포르의 역할과 국제 AI 포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데이터 보호, 경쟁, 그리고 AI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법에서 데이터 이동성과 ADM 거버넌스의 중요성



Qing HE (Assistant Professor,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China)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은 특정 데이터 전송 정책의 도입만으로도 시장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종종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는데 실패한다. 따라서 데이터 사용 정책의 복잡성과 정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이 경쟁 역학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서 Qing 박사는 EU, 미국, 중국 간의 ADM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 분석,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범위와 정의,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ADM 거버넌스가 생성형 AI에 대한 정책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AI 시스템의 위험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의 법적 관행을 토대로 금융 서비스 내의 신용 평가 시스템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였다.

새로운 AI 시대의 책임있는 AI 커뮤니티 설계

Kohei KURIHARA (CEO, Privacy by Design Lab, Japan)



새롭게 부상하는 AI 트렌드에 따라 AI 개발자와 제공자는 서비스 및 제품 개발 과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ohei씨는 이번 발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디자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전문가와 실무자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상호간의 “점을 연결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신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커뮤니티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관점과 통찰력을 통합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 관계 구축은 과거의 방법론과 실행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다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Session 2 AI 시대의 데이터 보호와 경쟁법의 조화

현황 점검: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경쟁법

Orla LYNKEY (Professor, University College London, Law School, UK)

데이터 보호와 경쟁법은 역사적으로 구분된 별개의 법 분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 경계를 허물기 위한 저항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애플(Apple)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법과 기술의 교차는 불가피하다. 두 법 분야의 상호작용은 네 가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보호법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적용은 시장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데이터 보호는 소비자 복지 기준의 일부로 경쟁법 분석에 통합된다. 셋째, 경쟁 고려사항은 동의와 같은 데이터 보호 개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입법부는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 문지기로서 데이터 처리 활동에 제한을 두어 이러한 교차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보호와 경쟁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준다.



AI를 통한 페르소나의 재현과 퍼블리시티권

Kunifumi SAITO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Policy Management, Keio University, Japan)

미국에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유사한 지적재산권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이 프라이버시권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주장은 퍼블리시티권의 기능을 공연권, 상업적 가치권, 통제권, 존엄권으로 분류하며, 특히 상업적 가치권과 상표권 간의 유사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2012년 일본 대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간주하였으나, 판결 해설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문 부서에 배정된다. 또한, 일본 하급 법원은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을 구별한다. 이번 발표에서 Kunifumi 박사는 AI를 활용해 고인의 페르소나를 재현할 때 관련된 법적 권리를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생성형 AI

Dae-Hee LEE (Professor, Law School,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생성형 AI의 개발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치열하다. 본 발표에서 이대희 박사는 한국의 개인정보 제도와 AI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본 발표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가 AI 개발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Session 3 디지털 보호막: 취약한 사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디지털 네이티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비디지털 네이티브의 도전

Byung-soo JUNG (Director, Children's Rights Division,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Republic of Korea)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채택으로 아동은 비로소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에 따라 2021년 UN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를 발표하였다. 이 논평은 디지털 기술이 아동의 삶에서 필수적이지만, 폭력, 학대,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수집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니세프는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아동을 중심에 두는 선택과 행동을 권장하며,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 중심' 접근 방식의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



아동과 AI: 아동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Steven Edwin VOSLOO (Policy Specialist, Digital Engagement and Protection, UNICEF Innocenti, Italy)

AI 시스템은 아동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아동은 장난감, 가상 비서, 비디오 게임,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여러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AI는 아동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즉, AI는 아동의 놀이, 의료, 교육 권리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알고리즘 편향이나 투명성 부족과 같은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본 발표는 아동의 AI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 마주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유니세프는 정부와 기술 개발자들이 아동을 위한 AI 활용 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아동 발달을 위한 AI 활용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의 취약 아동 보호 및 역량 강화: 세이브더칠드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Jeffrey DEMARCO (Senior Technical Advisor, Save the Children's Global Safe Digital Childhood Initiative, UK)



이번 발표에서 Jefferey 박사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발표한다. 첫째, 안전한 디지털 아동기 연합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남부에서 더 강력한 규제를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둘째,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IT for Learning/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안전 교육을 촉진하며, 호주에서는 페이스북과 협력해 태평양 국가에서 사이버 안전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인도에서 온라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동 보호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전략을 제공한다.

Day 2

Keynote 1

미래를 향한 탐색: 필리핀의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 규제 관점에서



Ivin Ronald D.M. ALZONA (Executive Director, National Privacy Commiss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에 필리핀은 AI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필리핀 개인정보위원회(NPC)의 Alzona 전무이사는 기초 연설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복잡성을 살펴보고, AI 시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한다. 또한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의 윤리적 함의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규제 관점에서 살펴본다. 무엇보다 국제적 모범 사례와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여 필리핀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AI 규제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한,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규제 기관, 산업 이해관계자, 시민 사회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ession 1 플랫폼 거버넌스와 생성형 AI 책무성

책임감 있는 AI를 위한 메타의 접근 방식

Raina Yeung (Director of Privacy and Privacy Policy, Engagement, APAC, Meta)

*본 발표는 Raina Yeung 을 대신해서 유다영씨가 발표함

본 발표에서 Meta의 Raina 씨는 Meta의 책임감 있는 AI 전략을 설명한다. Meta의 책임감 있는 AI 전략에는 2006년 AI 기반 Facebook 피드와 같은 초기 혁신부터 생성형 AI 메타 Llama3, 이미지 생성 모델, Imagine 같은 최근의 발전까지 Meta 내 AI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Meta의 책임감 있는 AI 프레임워크의 주요 원칙에는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 안전, 공정성, 협업이 포함된다. 이번 발표에서 신뢰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Meta의 노력을 강조한다.



말레이시아의 책임감 있는 AI: 데이터 보호 정책의 역할

Yan Ping Jillian CHIA (Attorney, SKRINE, Malaysia)



본 발표는 말레이시아의 AI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재, 말레이시아는 AI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제안된 계획을 살펴보고,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AI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말레이시아가 AI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체제와 같은 법률들이 AI 구현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일본의 생성형 AI 규제 환경: 통찰과 전망

Hitomi Iwase (Attorney, Nishimura & Asahi, Japan)

본 발표에서 Hitomi씨는 일본의 생성형 AI 규제 접근법 외에도 APPI 위반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와 같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룬다. 나아가 생성형 AI 개발 및 제공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플랫폼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한다. 일본의 생성형 AI 규제 접근법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특징지어진다. 기존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APPI)과 저작권법 등은 산업이나 AI의 특성에 따라 생성형 AI의 개발이나 사용에 적용된다.

2024년 4월,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기업을 위한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포함한 10가지 지침 원칙과 AI 개발자, 제공자, 사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Session 2 데이터 주권이란 무엇인가?: 글로벌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정(GCBPR) 및 조사 및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

"한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정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Jeong-soo Lee (Deputy Direct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본 발표에서 이정수 사무관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한국의 규제 및 정책을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규제의 역사적 개요와 함께 그 범위와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2023년 9월에 제정된 개정 법률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 법률은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적정성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증 및 동등성 인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 규제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베트남의 데이터 주권: 법적 요구사항, 집행 동향, 그리고 글로벌 CBPRs와의 상호작용

Huyen-Minh Nguyen (Senior Associate, BMVN International LLC, Vietnam)



Huyen-Minh씨는 베트남의 데이터 현지화 규정, 특히 데이터에 대한 국가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6년 사이버보안법 및 2022년 시행된 법령 53호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데이터법과 통신법 시행령 초안과 같은 추가적인 국경 간 데이터 제한을 도입하려는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탐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베트남에서 글로벌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의 적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글로벌 국경 간 이전: 중국, 홍콩 및 그 외 지역의 비교 분석

Dominic EDMONDSON (Special Counsel, Baker McKenzie, Hong Kong)



본 발표는 데이터 주권법을 준수하면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국가 간 상충하는 법률이 어떻게 데이터 이전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논의하고, 중국과 같은 여러 국가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어 글로벌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GCBPRs)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APEC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시스템을 예로 들어 광범위한 채택을 달성하는 데 따른 과제를 탐구한다. 이 발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시스템의 역할을 검토하고, 참여국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Session 3 데이터의 공정 활용

합성 데이터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탐구

Joseph Hyun-ta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합성 데이터는 현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기계 학습의 귀중한 자원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감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발표는 합성 데이터의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측면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합성 데이터 스타트업, <GRETA>의 CEO로서의 산업 경험에서 얻은 귀중한 통찰력을 공유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넘어서 실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사용 지침

Hyun-jun KWON (Former Director, Personal Data Secure Usage Division,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Republic of Korea)



AI의 발전으로 기존의 전통적 데이터 모델 대신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 처리 방법과 가명처리 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정형 데이터는 공익 기록, 통계, 또는 AI 연구와 같은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PDPA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 특례 조항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본 원칙은 데이터 처리의 목적, 맥락, 그리고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 위험이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과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위험 요소는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연구 및 기술 개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명처리된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복원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3회 Asia Privacy Forum 성료: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선, 국제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

김유선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제13회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리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이하 APB 포럼)의 주제는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rustworthy AI Governance and Privacy)”으로,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에 맞춘 각국의 정책 및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총 6개의 세션과 2개의 기조연설로 구성된 포럼에는 모두 19명의 연사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각국의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AI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각국의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했고,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의 아동 인권 전문가들도 포럼에 참여하여 디지털 취약 계층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포럼 1일차 마지막엔 공동 선언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등 9개국의 전문가들이 서명한 공동 선언은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APB 포럼의 주목할 점은 디지털 취약 계층에 관한 논의와 제안이 이뤄진 점이다. 특히 아동을 디지털 취약 계층으로 조명하며, 연사들은 발전하는 AI 환경 속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공유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주로 AI 기술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과 정책적 패러다임이 논의됐으나, 이 세션은 급속도로 진화하는 AI 환경에서 아동 및 어린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접근의 필요를 재확인하게 했다. 이는 AI 발전 속도에 맞춘 선제적 규제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APB 포럼은 AI와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각국 전문가들의 논의는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데이터 주권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뉴데일리, 지디넷코리아 등 여러 언론 매체가 ‘제13회 APB 포럼’ 개최 소식을 전했다. 특히 지디넷코리아, 베리타스 알파, 한국강사신문 등은 “2015년 시작한 APB 포럼이 아시아권의 개인정보 보호와 ICT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으며, 이들은 APB 포럼이 “아시아 지역의 선진 사례와 정책적 논의가 점차 심화되며,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



바른ICT연구소,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악성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시뮬레이터 α버전’을 공개

악성댓글연구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2024년 10월 19일,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 창조관에서 개최된 202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악성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시뮬레이터 α버전’을 공개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웹기반 대시보드 형태로 설계되어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시각화해 보여준다. 사용자는 대시보드 상에서 악성댓글의 영향 요인을 조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α버전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오류를 보완하고 기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바른ICT연구보고서 2024-1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분석 2.0’

(③ 사회 경제적 비용 분석)

악성댓글연구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지난 호 바른ICT뉴스레터를 통해 두차례에 걸쳐 바른ICT연구보고서가 조사한 악성 댓글의 사례 및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의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분석’ 장을 요약하며 연재를 맺으려 한다.

2024년 연구보고서의 비용분석 모형은 2022년의 것과 비교해 추정 모형을 정교화하고 최신의 통계 및 전문가 면담 자료를 반영하였다. 또한 2024년 보고서 발간일 기준으로 비용 추정에 참고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2022년까지 최신화 되어있어, 모든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2022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용 추정의 범위로 기업 등의 기관이 입은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온라인 뉴스 플랫폼 등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이 입은 피해에 한정하였다.

직접 측정 비용으로는 악성 댓글 피해로 인한 의료 비용, 법률 비용, 예방교육 비용, 연구 및 홍보 비용을 고려하였고, 간접 측정 비용으로는 학업 및 업무 능률 저하 기회 비용, 행복 상실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였다. 단,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피해 유형은 피해 규모의 계량적 추정이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비용 구분 | 비용 항목 | 내용 | 측정 방법 |
|----------|-------------|----------------------|---|
| 직접 측정 비용 | 건강 비용 | 병원 진료 및 치료 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초해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의 연간 의료비용 추정 |
| | 법적대응 및 벌금비용 | 변호사 선임 비용 | 전문가 자문에 기초해 간 법적 소송 관련 비용 추정 |
| | | 손해배상액 | 전문가 자문에 기초해 간 손해배상 비용 추정 |
| | | 형사 벌금액 | 형사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기초해 간 평균 벌금 선고액 추정 |
| | 예방 교육 비용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비용 | 예방교육 경험에 기초해 간 예방 교육비용 추정 |
| | 사회 개선 | 악성 댓글 | 한국연구재단 융역과제 연간 총연구비 |
| 간접 측정 비용 | 심리적 비용 |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 | 스트레스지수(PSS)와 생산성 감소율의 관계를 밝힌 VanWormer 외(2011)의 음이항회귀모형을 활용해 재학 청소년의 학업 능력 저하와 직장인의 직무 능력 저하로 인한 기회비용을 추정 |
| | |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 | 여가 시간, 일상 향유, 친교 활동의 기회 손실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 |

악성 댓글 피해 비용의 분류와 측정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총 비용은 최소 10.1조원에서 최대 22.3조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4년 보고서의 비용 분석 모형은 추정 방식을 정교화 함에 따라 2022년의 모형과 차이가 있어 두 모형으로부터 각각 추정된 결과를 직접 대조해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수집된 피해 사례와 비용 추정에 활용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악성 댓글 피해의 심각성과 대처 노력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노력이 확대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피해자 개인의 법적 의료적 대처가 과거보다 적극적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여전히 악성 댓글 피해는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연구의 범위가 개인의 피해로 한정되고 극단적인 피해 사례가 제외되었음을 고려할 때,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피해 비용은 연구보고서가 추정한 수준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악성 댓글 피해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본지가 요약한 바른ICT 연구보고서는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 분석을 위한 2차 보고서이다. 2022년경 1차 보고서의 발간과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국회 토론회(“악성 댓글을 보았다”, 2022년 10월 17일)가 개최된 이래, 바른ICT연구소에서 수행한 악성 댓글에 관한 학술 및 정책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번 2차 보고서의 발간이 끝이 아니다. 악성 댓글 피해의 조사 분석을 주기적으로 최신화 하며 연구를 지속해갈 예정이다. 바른ICT연구소의 악성 댓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악성 댓글 피해의 현황과 추이를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실효적인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수립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악성 댓글의 사회 경제적 비용 추정 결과

ESG 경영과 혁신의 좋은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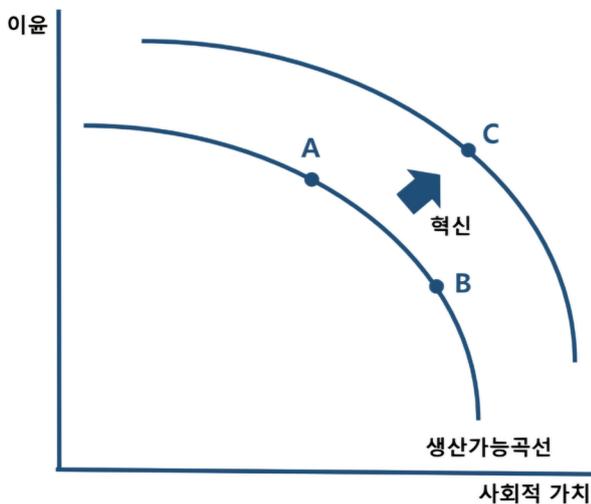
조 신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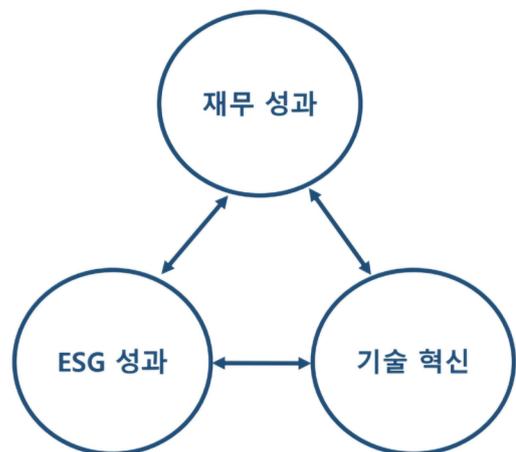
왜 ESG에서 혁신이 중요한가?

기업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이윤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다.

그런데 ESG 경영에서 혁신의 중요성은 그보다 더 크다. ESG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높이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환경·사회 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림 1]에서 A, B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경영자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하다. 바로 이 지점이 ESG와 혁신이 만나는 곳이다. 이 그림에서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 위로 밀어 올려야 한다. 이는 곧 기업 역량을 증진한다는 뜻인데, 혁신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면 A나 B냐의 고민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C라는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림 1] ESG에서 혁신의 역할



[그림 2] ESG-혁신-성과 간의 관계

ESG, 혁신, 그리고 기업 성과 간의 복잡한 관계

ESG, 혁신, 그리고 기업 성과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큰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술혁신과 재무성과 간의 관계는 가장 분명하다. 혁신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이윤 증대로 이어진다. 한편, 이윤이 많은 기업은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더욱 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술혁신과 재무성과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ESG 경영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ESG 성과와 수익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좋은 ESG 성과가 수익률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인심 나뉘듯이 수익성 좋은 기업이 ESG 점수도 높은 건 당연하지 않냐는 시큰둥한 반응도 뒤따른다.

그런데 이 두 변수 간에 일관되고 확실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ESG 경영과 혁신 활동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ESG 활동은 제품(product)과 프로세스(process) 혁신을 통해 가능하므로, ESG와 혁신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혁신 없이 ESG 경영만으로는 재무성과를 올리기 어렵고, 또한 오늘날 많은 혁신은 지속가능경영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ESG 활동은 제품과 기업 레벨에서 차별화를 촉진한다. 먼저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사 제품이 환경, 건강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한다. 또한 많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사회 문제 개선에 참여한다고 믿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무농약 과일”처럼 제품 레벨에서, 또는 “유기 비료”를 사용한 제품처럼 생산 과정에서 ESG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는 바로 제품 및 혁신 활동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ESG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품질, 신뢰, 정직함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예컨대 방목하여 키운 닭이나 소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더 나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쉽다. 오늘날 환경 친화적인 식품, 의류,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ESG 경영과 혁신 활동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경쟁우위를 만들어냄으로써 기업의 재무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을 때 ESG와 혁신 중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지, 둘이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SG 경영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때, 만약 혁신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ESG 경영이 미치는 영향이 과대 평가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혁신과 관련성이 없는 ESG 활동이라도 기업 성과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혁신이 활발한 산업에서는 ESG보다는 혁신이 더 큰 역할을 하며, 혁신의 역할이 크지 않은 산업일수록 ESG가 기업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혁신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ESG와 혁신 활동이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직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R&D 지출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일수록, 자본 제약으로 인해 모든 ESG 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특정 ESG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환경 R&D에 많은 지출을 하는 기업은 ESG 중에서 환경(E)쪽 활동에 주로 집중한다. 이처럼 기업은 재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SG와 혁신의 최적 결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ESG와 혁신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SG 성과가 혁신 활동과 재무성과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기는 하나,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ESG 경영의 궁극적 수혜자는 소비자

그럼, ‘모든’ 기업이 ESG 경영을 잘하면 ESG 목표도 달성하고 이윤도 증가할까? 일부 선도적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차별화를 이룸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ESG 경영이 널리 보편화되어 거의 모든 기업이 ESG 활동을 잘하는 단계에 이르면, ESG가 경영 활동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때는 모든 경영 활동이 그렇듯이 일부 잘하는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ESG 활동에서 추가적 이윤을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ESG 경영을 무시하는 기업은 아예 경쟁에서 탈락하여 퇴출당할 것이 분명하다.

경영 혁신의 과실은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가고, 혁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기업은 높은 이윤으로 보상받고, 혁신에 동참한 평균적인 기업들은 평균 수익률을 거두며, 혁신의 물결을 거부한 기업은 도태된다는 일반적인 경제 이론은 ESG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ESG 경영을 독려한 투자자와 이를 실천에 옮긴 경영인들은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주인공임이 틀림없다. 🌱

Perplexity로 더 똑똑하게: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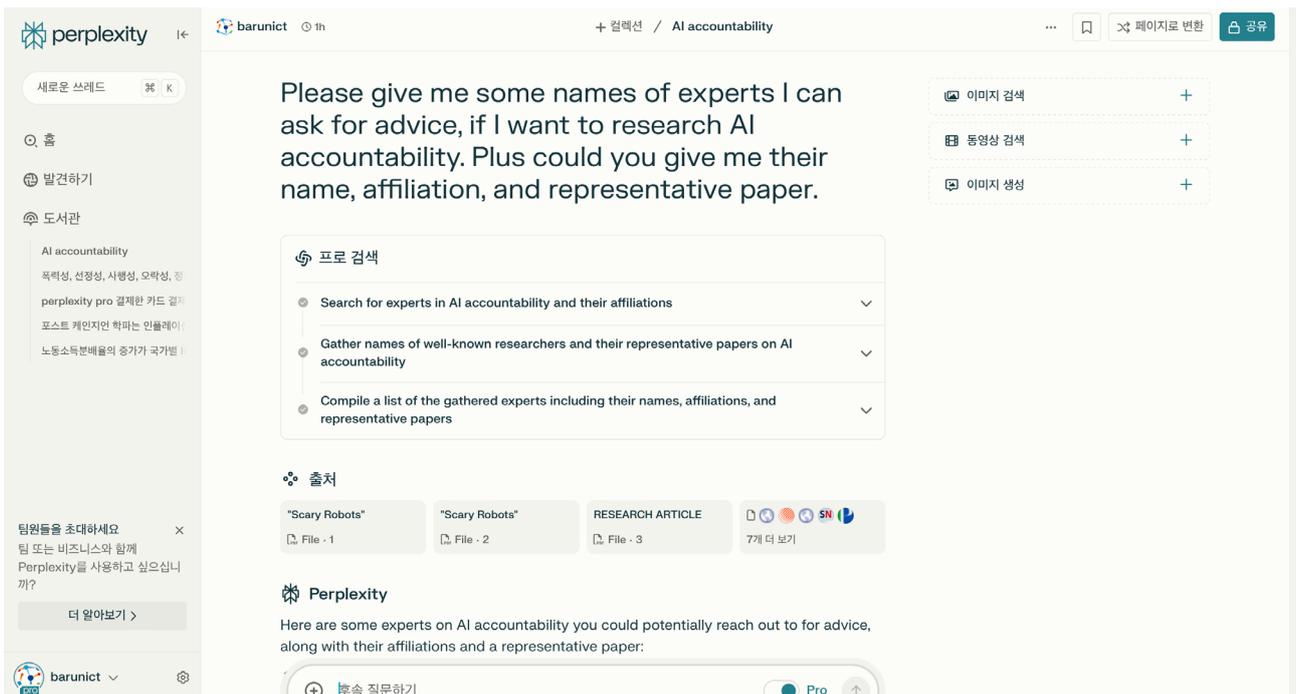
김유선 인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 기사는 현재 국내에서 Chat-GPT만큼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Perplexity를 조명하고자 한다. 지난 9월, 바른ICT연구소 정미정 연구교수의 AI Accountability(인공지능의 책임성)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Perplexity를 활용해 학술 자료 검색과 내용 정리를 수행했다. Perplexity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도구가 연구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독자들이 연구와 AI 활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투명한 UI,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Perplexity

Perplexity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한 부분은, 이 AI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사실이다. Perplexity는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와 상이한 텍스트 생성 과정을 갖추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UX(User Experience)를 구축했다.

Perplexity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프롬프트를 분해하고 분석한다. 이 과정을 거쳐 Perplexity는 해당 프롬프트를 토대로 새로운 질문들을 자체적으로 도출해내고,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웹 크롤링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Perplexity는 웹 크롤링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는다. 크롤링으로 얻은 정보를 최초의 프롬프트에 맞게 재구성하여 답변을 내놓는다. Perplexity가 프롬프트를 심화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기존의 생성형 AI들보다 더 정교하고 고품질의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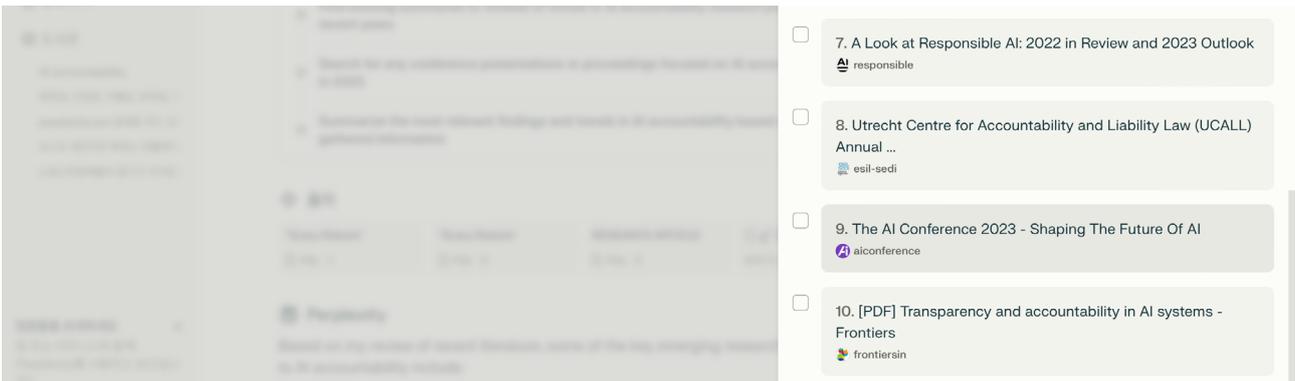
[그림 1] Perplexity가 프롬프트를 분석해 여러 질문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색하는 모습이다.

Perplexity가 이러한 심층적인 기술적 과정을 통해 답변을 생성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Perplexity가 항상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AI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점은 Perplexity가 사용자가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를 통해 가시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마치 블랙박스와의 같은 AI의 내부 작동 방식을 사용자에게 가시적으로 전달하면서 Perplexity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답변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인다. 이 때문에 Perplexity로 작업한 후, 다른 AI와 작업할 때 느꼈던 불신과 답답함이 크게 해소되었다.

기존에 나는 연구 자료를 찾기 위해 주로 구글을 활용해왔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꺼려졌기 때문이다. 설령 생성형 AI로 과제나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AI가 잘못된 정보나 만들어낸 내용을 그럴듯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교차검증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차라리 내가 직접 구글로 찾고 검토하는 게 빠르겠다!”

이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불신감이 적지 않았지만, 이는 Perplexity를 사용하며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Perplexity는 답변에 인용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자가 바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답변을 검토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결과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Perplexity가 모델 내부의 사고 과정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답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UI를 통해서 보여주는 등 AI 할루시네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림 2] Perplexity는 답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며, 배너를 누르면 해당 링크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연구에 특화된 생성형 AI, Perplexity

위 과정을 통해 Perplexity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후, Perplexity의 투명성이 많은 연구자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선되는 연구 근거의 신뢰도이다.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Perplexity의 기능 또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농친 부분까지도 스스로 점검하여 보완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한 단서들을 제공해 연구를 더욱 깊이 있게 확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프로 검색 툴'을 이용하면, Perplexity가 입력된 프롬프트에 기반해 생성한 질문과 그에 따른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답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개별 질문에 대한 결과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광범위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짝 연구의 해답을 얻듯,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생각치 못한 연구의 확장이나 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 즉 투명성과 심화 검색 기능에 비추어 볼 때, Perplexity는 연구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생성형 AI로 평가할 수 있다.

미래 전망

2022년 출시된 Perplexity가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생성형 AI라는 점과, 한국어 프롬프트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Perplexity가 제공하는 투명성, 신뢰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 덕분에 앞으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채용공고

채용분야

- 공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등 관련 분야
-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이메일로 제출 (barunict@barunict.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 02-2123-6694 참조

바른ICT연구소 SNS를 소개합니다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올바른 ICT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https://youtube.com/channel/UCjfXpX92IIUfKQUmwE_BqsQ

네이버 블로그
바른ICT연구소



<https://m.blog.naver.com/barunict>

인스타그램
barunict



<https://instagram.com/barunict>

- * 본 연구소의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되는 외부 기고글(칼럼, 글로벌 뉴스 등)은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이견우
Editor 유경주, 김예은 | Designer 조아라, 윤주원



바른 ICT 연구소
Barun ICT Research Center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 (국문), www.barunict.org (English)

